

코로나 이후 광주·전남 고신용자 대출 2배 늘었다

2020~2021년 평균 보증액 4280억...전년비 90.5% 증가 광주·전남 신보, 중신용·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진행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광주·전남 고신용자들의 대출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신용보증전문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액의 63.2%는 중신용자(2-5등급)에 몰려있었다. 26일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 평균 보증금액은 1조4838억원으로, 국내 확산 이전인 2019년보다 58.0%(5450억원) 증가했다. 광주·전남신보의 보증금액은 9388억원(2019년)→1조8554억원(2020년)→1조1121억원(2021년) 등으로 늘었다.

최근 3년 동안 보증금액을 신용도에 따라 살펴보면 옛 신용등급 2-5등급(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보증액이 63.2%(2조4699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등급(920점 이상)이 27.7%(1조806억원)로 뒤를 이었고, 6등급 이하의 9.1%(3558억원) 비중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광주·전남에서 대출이 가장 크게 늘어난 대상은 고신용자였다. 2020~2021년 2개년 평균 보증액과 2019년 보증액을 비교해보니 고신용자 증가율은 90.5%(2246억원→4280억원)에 달했다.

중신용자 보증액 증가율은 53.3%(6075억원→9312억원), 저신용자는 16.7%(1067억원→1246억원)로 나타났다. 고신용부터 저신용까지 모두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보증액이 급증한 뒤 지난해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광주·전남 고신용자 보증액은 2246억원(2019년)→5378억원(2020년)→3182억원(2021년) 등으로 증가했다. 중신용 보증금액은 6075억원→1조1722억원→6902억원, 저신용은 1067억원→1454억원→103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광주·전남신보를 통한 보증건수는 광주 7만8382건·전남 8만7077건 등 15만9089건으로 집계됐다. 보증건수 역시 중신용이 62.5%(9만9479건)로 가장 많았고 고신용 23.3%(3만7038건), 저신용 14.2%(2만2572건) 순이었다.

보증금액을 건수로 나눠보니 1건당 평균 보증액은 2455만원 떨어졌다. 고신용자 1건당 평균 보증액은 2918만원이었고 중신용 2483만원, 저신용 157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2년 평균 보증건수를 2019년과 비교해보면 고신용자 수는 107.8% 증가하고 중신용자는 57.7%, 저신용자 8.7%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신용도에 걸쳐 대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저신용자의 경우 연체 등 이유로 보증이 불가능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한편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난 24일부터 접수한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이틀에 걸쳐 광주·전남 800여 명이 신청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

상공인이다. 보증료(0.8%)는 1년차에는 전액 면제,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0.8%→0.6%)해준다.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포인트 이내)가 적용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총 38만개사에 3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며, 광주지역은 1000억원 가량 신청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0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보증기간은 5년이다. 혼잡을 막기 위해 다음달 11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24일, 2-7이면 25일, 3-8이면 26일, 4-9이면 27일, 5-0이면 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말까지 연장

국세청, 세무서 방문 예약 서비스·AI 세금비서 시범 도입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지급 후 소득 정산 결과에 따라 일부 환수하던 시스템을 개선해 '찾다가 뺏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하고, 온라인을 통한 세무서 방문 예약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세금비서' 시범 도입 등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6일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등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해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영세 자영업자나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 급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중소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에서 3월로 미루고, 손실

보상 비대상 업종 소규모 사업자의 중소기업 중간예납은 2월에서 5월로 유예한다. 특히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하고 9월에 연간소득을 정산하던 절차를 개선해 6월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소득 정산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6월 하반기분을 지급한 뒤 9월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분을 환수해 장려금을 '찾다가 뺏는' 사례가 사라지게 된다. 이밖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번호표를 받을 수 있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 예약 서비스를 도입하고, 홈택스 개통 20주년을 맞은 올해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라인에서 대부분 세금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세금비서'도 시범 도입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신고를 간편하게 해주는 미리제출·모두제출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전국 130개 세무관서장들은 실제 사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아바타로 회의에 참석해 감대지 국세청장의 모두발언 등을 청취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아동센터에 설 선물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과 CEO 모임 광은리더스클럽(회장 김홍균·남산산업)은 지난 25일 광주시 남구 해솔지역아동센터와 동구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 찾아 가전과 설 맞이 아동센터 후원 성금을 전달했다. 2007년 창립한 광은리더스클럽에는 26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정보문진원, 산하기관 첫 '노동 이사제' 도입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광주시 산하 19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 이사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7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그동안 광주도시공사, 환경공단, 도시철도공사가 도입해왔으며, 지난해 6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

진흥원은 지난 25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노동이사 후보모집을 위한 계획안을 확정하고 선고 공고를 했다.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가 입후보 할 수 있다. 최종 노동이사로 선출되면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 연임 가능하다. 다음달 18일 전 직원 투표를 벌여 노동이사 후보순위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그동안 노사협의회, 전 직원 간담회, 정례 교육 등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 및 운영 등에 대한 노사공간대를 충분히 형성했다고 설명했

다. 노동이사 선출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 노동이사 선출 선거관리규칙 제정 등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도 마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기부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창업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지역까지 창업가)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이다. 올해는 예비창업자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 총 170개사를 선정한다.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각각 최대 1000만원,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또 지역기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가치 창업가 간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이들을 지원한다. 협업과제 지원에 관한 세부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3월 3일 오후 6시까지로, K-창업기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09.24 (-11.15)
↓ 코스닥	882.09 (-7.35)
↓ 금리(국고채 3년)	2.156 (-0.018)
↓ 환율(USD)	1197.70 (-0.90)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